

##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추이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임금 중위수준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는 2010년 1~3월 평균 시간당 약 5,523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2010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5%를 차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근로빈곤 상태에 있음.
- 비정규직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7년 3월 33.9%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는 한시근로자 중 계속근무 기대 불가와 시간제, 용역, 일일, 가정 내의 근로형태에서 50%가 넘으며, 가정 내 근로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저임금근로자임.

<표 1>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07. 3	2008. 3	2009. 3	2010. 3
임금근로자	24.1	26.3	26.6	25.8	27.4	26.0	26.2	23.3	26.7	25.6	26.5
정규직	17.6	19.7	19.4	19.0	20.2	19.0	17.3	17.1	18.7	17.8	18.7
비정규직	37.7	37.5	39.1	38.3	40.2	39.7	42.7	33.9	41.5	41.1	42.4
한시직	36.8	35.8	37.7	36.0	36.8	36.4	40.9	30.7	37.9	36.7	38.1
기간제	37.1	36.2	35.5	36.0	36.3	33.8	38.8	30.5	32.8	31.9	37.3
계약반복갱신	22.3	17.9	27.3	19.5	19.2	20.9	17.7	14.4	18.8	33.6	14.2
계속근무기대불가	44.9	53.5	53.6	53.7	60.6	58.5	59.7	50.3	59.9	57.7	58.0
시간제	41.4	44.0	46.6	43.4	49.6	52.7	55.3	42.1	52.9	53.2	57.2
파견	27.3	34.9	31.5	34.2	32.8	23.9	24.7	28.8	29.8	26.0	33.7
용역	58.3	58.3	56.0	63.3	59.5	56.3	56.3	55.5	53.7	54.9	57.0
특수고용	23.3	22.1	25.5	27.4	30.8	23.8	26.2	24.6	25.7	27.8	24.7
가정 내	80.3	67.2	65.7	71.6	80.4	79.6	77.2	62.8	63.3	80.8	88.4
일일	47.4	50.0	50.9	48.1	52.0	51.0	52.7	43.9	54.3	56.7	54.2

주: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시간당 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고, 20~30대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남.
  - 2010년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은 16.4%, 여성은 40.2%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 저임금근로자가 약 2.5배 가량 높은 수준임.
  - 특히 남성은 정규직에서 10% 미만, 비정규직에서 34.4%가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고용형태를 나누어 보더라도 여성에 저임금근로 비중이 더 높은 편임.
  - 한편, 남성 시간제와 파견근로의 저임금근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 2010년 3월 기준으로 14.1%인 반면, 10대는 83.7%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40대에서 23.9%, 50대에서 33.5%, 60세 이상에서 69.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년층과 고령자에 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금근로자에서 저임

〈표 2〉 근로형태별·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남 성				여 성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임금근로자	14.0	16.6	15.7	16.4	36.0	40.5	39.2	40.2
정규직	8.6	9.2	8.7	9.9	30.9	34.0	32.8	33.7
비정규직	25.4	33.4	33.4	34.4	42.8	49.7	48.5	49.3
한시직	21.2	28.5	28.5	29.1	41.8	48.2	45.5	46.5
기간제	23.1	27.5	25.8	30.7	39.9	39.4	38.9	43.5
계약반복갱신	6.5	6.0	20.5	8.2	26.4	38.3	37.5	22.5
계속근무기대불가	33.4	43.7	43.0	40.1	59.7	70.7	68.7	69.8
시간제	36.4	49.9	48.4	56.6	44.8	54.2	55.1	57.4
파견	13.0	12.5	18.2	33.9	42.4	49.1	32.5	33.6
용역	49.7	48.7	51.1	52.9	64.4	61.3	59.6	62.5
특수고용	25.4	23.6	27.7	22.5	24.2	26.9	27.8	25.6
가정 내	43.4	27.9	57.0	71.9	65.0	76.8	84.0	90.3
일일	33.3	43.9	43.8	43.2	63.4	74.3	80.8	76.8

주 :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시간당 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과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높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근로빈곤층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KLI**

<표 3> 2010년 3월 근로형태별·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전 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26.5	83.7	24.7	14.1	23.9	33.5	69.0
정규직	18.7	81.4	21.5	10.6	18.2	24.1	53.9
비정규직	42.4	84.5	32.4	24.9	37.1	48.1	75.7
한시직	38.1	75.0	23.8	19.4	34.5	47.8	76.9
기간제	37.3	66.9	21.8	17.0	30.8	48.0	77.5
계약반복갱신	14.2	-	12.3	7.4	16.3	22.3	51.1
계속근무기대불가	58.0	95.6	47.3	48.0	59.5	56.1	78.2
시간제	57.2	87.3	54.0	41.4	47.1	55.5	75.9
파견	33.7	78.4	22.2	9.5	37.3	36.1	76.5
용역	57.0	74.9	35.5	20.5	38.8	61.2	83.3
특수고용	24.7	-	13.7	17.2	23.3	26.8	76.0
가정 내	88.4	-	83.6	86.3	82.9	92.6	100.0
일일	54.2	100.0	61.9	50.9	43.9	51.0	74.7

주: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시간당 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